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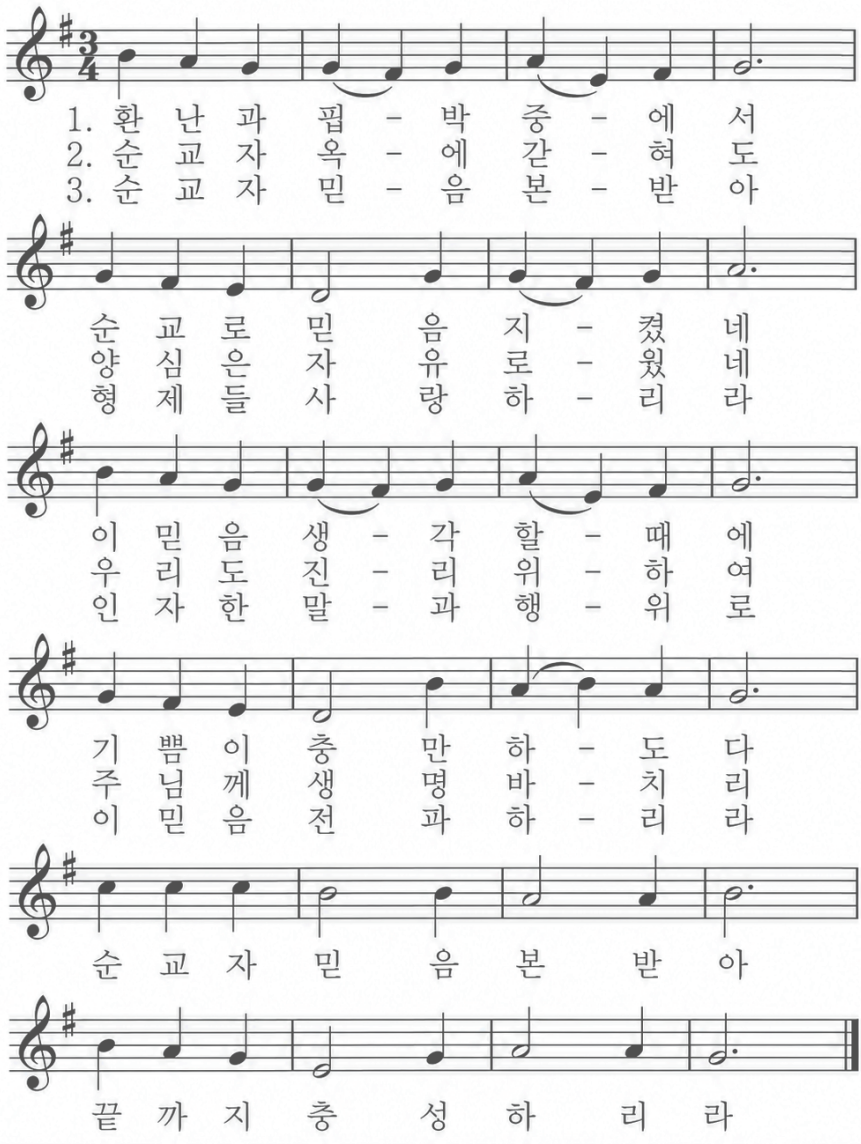
2026 **9**

제523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톨릭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

보통 빠르기로 H. F. Hemy & J. G. Walton 작곡



Contents

4 • **시노드 기도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6 • **성령 안에서 대화**

10 • **구역반장 월례연수**
2027 서울 WYD 영적 가치 - 평화 <화해>

16 • **말씀나눔**(최연준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23주일
연중 제24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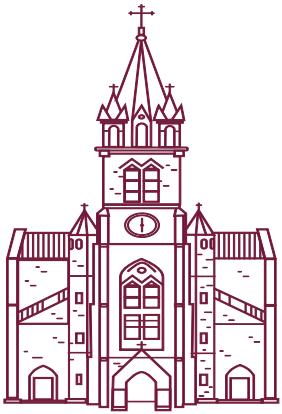
34 • **가로세로 낱말 퀴즈**

36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더디지만 한 걸음씩

38 • **성경 73 / 성경 통독 길잡이**
베드로 2서

42 • **매일 하느님과 함께**

43 • **문화산책**



발행인 정순택 **편집인** 김연범 **편 집** 박민혜 **인 쇄** 가톨릭출판사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www.samok.or.kr

문 의 02) 727-2085 / samok@seoul.catholic.kr

이 교재의 저작권과 판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있으며, 모든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과 복제를 불허합니다.

시노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보성인들이여,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대화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2. 개인적 준비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공동체가 젊은이를 환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참가자 중 한 명 또는 돌아가면서 내용을 낭독합니다.

"청년 사목은 시노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6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회는 청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본당에서는 신앙 활동에 충실한 청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며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구역 혹은 본당)에서 젊은이들을 환대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7장 참고(QR)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 오늘 주제와 연관하여 나의 신앙 체험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3. 말하고 듣기 – 〈나눔 I 〉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제공된 주제 중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에 와닿은 내용 나누기

•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3~4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4명이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묵상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느님께 내 마음속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침묵과 기도 I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5.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 – 〈나눔 II〉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을 나누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안에서 나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참가자들의 나눔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나누기

• 나눔 대화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퍼졌다고 느낀 것에 대하여 2분 이내로 나눕니다.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6. 침묵과 기도 II

오늘 나눈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느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3분간 갖겠습니다.

7.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 〈나눔 III〉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즉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단계로 함께 가도록 부르고 계신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

-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본당)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감과 제안을 각자 2분 이내로 나누겠습니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명씩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8. 마침 기도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평화 <화해>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고해성사를 앞두고도 가족이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화해하지 못한 마음에 무겁고 찜찜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다짐해보아도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더 무거운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화해는 여정입니다.

화해는 갈등이나 대립, 상처로 인해 멀어졌던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과정"입니다. 화해는 한 번의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길을 떠나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과 같은 긴 순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서

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여러 도시를 거쳐야 하듯, 화해 역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칡나무 '갈(葛)'자와 등나무 '등(藤)'자가 만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넝쿨 식물인 칡나무와 등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서로 '신념과 목표가 충돌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우리가 화해하려면 우선 나의 신념과 목표는 무엇이었고, 상대의 그것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체성, 인정, 이익, 안전 등의 목표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는데, 화해의 여정에서 이 중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갈등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나의 목표만이 아니라 상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화해에 이르기 위한 그 다음 요소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갈등 과정에서 내가 피해를 준 것과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기에 나의 손해는 크게 보이고, 나의 가해는 적게 인식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처에서 내가 준 것은 무엇이고 받은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에 기반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갈등에서는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사과와 보상은 피해자 측에서 감해줄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꼭 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보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전부 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상대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기에 용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더이상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용기있게 나아가는 나 스스로를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이러한 과정 전체가 바로 화해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며 조정하고,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더이상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전체의 과정이 바로 화해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계들을 생략하고 곧바로 용서하려 하거나 즉시 화해를 이루려 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더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를 위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성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영성은 **〈희망〉**입니다. 틀어진 관계와 상처를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비록 어렵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희망입니다. 둘째 영성은 **〈하느님 사랑 체험〉**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역시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영성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넷째 영성은 **〈유혹 이겨내기〉**입니다. 화해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지기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영성은 **〈우주적 차원의 시선〉**입니다. 갈등의 관계를 단순히 가해자-피해자 도식이 아닌 더 넓고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새롭고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 찾기

희망, 하느님 사랑 체험, 기도, 유혹 이겨내기, 우주적 차원의 시선. 이 다섯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넓은 차원의 시선을 간직할 수

있으나 자꾸 복수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는 하느님 사랑 체험이 강하지만 기도로 이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화해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각자 하느님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은총에는 감사드리고, 부족한 은총은 청하며 용기있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가 변할 수 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화해로 나아갈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화해를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수용 이냐시오(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말씀나눔 방법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2. 말씀 듣기

-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합니다.
-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3. 말씀 찾기

- 봉독한 말씀을 떠올리며 작성해보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봅니다.

4. 복음 이해하기

- 복음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5.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묵상을 안내하는 질문 외에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봅니다.
- 나눔을 할 때에는 경청하고,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6. 말씀의 실천

- 지난 주(달) 실천하기로 정한 것들을 실행했는지 함께 확인해봅니다.
- 자신과 소공동체가 한 주(달) 동안 실천할 일을 함께 정해봅니다 : 실천 사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본당 소식 및 구역·반 소식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7. 마침 성가와 기도

-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침 성가로 가톨릭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2페이지)을 부르고 기도를 바칩니다.

연중 제23주일

마태 18,15-20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18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네 (　　)가 너에게 (　　)를 짓거든, 가서 (　　)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15절)

② "너희가 무엇이든지 (　　)에서 매면 (　　)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　　) 하늘에서도 (　　) 것이다."(18절)

③ "(　　) 사람이나 (　　) 사람이라도 (　　)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20절)

복음 이해하기

화해를 향한 인내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거나 벌을 주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타이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규정들은 매우 엄격해서 죄인들을 즉시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공동체 전체에 알리기 전에 먼저 형제적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시도를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에 관해 이와 같이 언급되는 이유는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죄 속에 남아 있지 않고 그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구절(20절)은 직역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형제를 향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온전한 화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다른 이와의 관계 안에서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나요?

2. 내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하늘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어느 때 느끼시나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며 마침 성가('순교자 믿음',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24주일

마태 18,21-35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18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일곱 번이 아니라 (　　) 번까지라도 (　　)해야 한다."(22절)

② "'이 (　　)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　　)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　　)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32-33절)

③ "자기 형제를 (　　)으로부터 (　　)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　　)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35절)

복음 이해하기

숫자 일곱(7)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숫자 가운데 일곱(7)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다인들은 일주일 중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보냈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을 갈지 않고 묵혀 쉬게 하였습니다(레위 25,4 참조).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서 49년째 되는 해는 더욱 경사스러운 해로 희년을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습니다(창세 2,2 참조).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온갖 동물들이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으며(창세 7,10 참조), 노아는 땅에 물이 걷히고 나서도 7일을 기다린 후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창세 8,10 참조). 또한, 신약 성경의 요한 묵시록에서 언급되는 일곱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성령 칠은과 일곱 성사 등 숫자 7은 완전한 수로 여겨졌고, 순결한 신앙(로마 11,4 참조)이나 완성,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일흔일곱 번이라는 숫자의 한정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뜻하는 일곱이라는 숫자의 반복을 통해 회개하는 이를 향한 끝없는 용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데에 지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2. 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자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순교자 믿음',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루카 9,23-26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9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누구든지 (　　)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　　) 제 (　　)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23절)

② "사람이 온 (　　)을 얻고도 (　　)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25절)

③ "누구든지 나와 (　　)을 부끄럽게 여기면, (　　)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　　) 여길 것이다."(26절)

복음 이해하기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

18세기 말 몇몇 실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로 시작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고, 1791년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821년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충남 당진 솔뫼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의 나이에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신학 공부를 이어갔고 1845년 8월 17일 상해 부근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에 돌아와 교우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목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만 25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교우들 보아라. …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옥중서한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교우들을 격려하였고, 평신도 지도자로 조선교구 설립의 길을 연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비롯하여 동료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신 분들로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도 함께하십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2. '2027 서울 WYD' 수호성인이기도 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순교자들의 피로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하신 주님께 굳은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마침 성가('순교자 믿음',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마태 21,28-32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21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　　)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　　)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28절)

② "이 둘 가운데 누가 (　　)을 실천하였느냐?"(31절)

③ "사실 (　　)이 너희에게 와서 (　　)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　　)은 그를 믿었다."(32절)

복음 이해하기

믿음의 실천

오늘 복음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복음적 삶이 요구될 때, 마음속에서 큰아들과 같이 '싫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이는 말로만 대답한 작은아들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큰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다는 표현은 뉘우쳐 돌아섰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으로 옮겨질 때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기도로 실행되는 믿음의 실천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보편 교회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지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이주민과 난민은 전쟁과 불의 속에서도 굳센 용기와 신앙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총의 표징이기에 이들에 대한 환대와 동행에 함께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레오 14세 교황,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참조).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생각만 하던 일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바른 지향을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마침 성가('순교자 믿음',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가 로 열 쇠 >

2.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와 성녀 유 체칠리아의 아들. 한국 천주교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다.
5. 사형 방법 중 하나로 밧줄로 사형수의 목을 매달거나 옭아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 한국 순교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방식으로 순교하였다.
6. 성인(聖人)들의 일생을 다룬 전기(傳記).
7. 조선시대 한양의 4소문 중 서쪽으로 난 문으로, 이 문 밖 사거리는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곳이며 오늘날 순교성지로 조성되어 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언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성지 중 하나.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 곳에서 참수형

으로 순교함에 따라 현재의 명칭이 붙었다.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순교성지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이 이 곳에서 순교하였다.
15.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잘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안성에 유기를 주문하여 만든 것처럼 잘 들어맞는다는 데서 유래.

< 세 로 열 쇠 >

1. 전례력으로 9월은 'OOOOO'이다.
2. 무언가의 모양을 가지런히 함. 혹은 생김새를 고쳐 바로잡음.
3. 1839년 성 정하상 바오로가 쓴 한국 최초의 천주교 호교론서(護敎論書). 조선 조정을 대상으로 천주교 교리를 옹호하는 한편 천주교가 조선에 해로운 종교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4. 이탈리아의 수도. 교황청이 이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8. 충청북도 단양과 경상북도 영주에 걸쳐 있는 높이 1,439m의 산. 정상은 비로봉(毘盧峯).
9.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우리나라에는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따위가 있다.
10. 황해도 봉산에 전해지는 산대놀음 계통의 탈춤. 국가 무형 문화재 제17호.
11.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성지로,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생가터.
13. 열대 과일 중 하나. 달고 풍미가 진한 맛으로 '과일의 왕'이라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독특하고 이질적인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큰 과일.

하상헌 윤호요셉 신부(여의도동성당 부주임)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더디지만 한 걸음씩

조선을 향한 브뤼기에르 주교의 여정(페낭-싱가포르-마닐라-마카오-복안-히아푸-남경-직예-산서성-서만자-마가자)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선 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포교성성의 총대표부가 있는 마카오로 가는 길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1,120프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고,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영국 선장의 호의로 저렴하게 배를 탈 수 있었고, 시암 선교지의 클레망소 신부는 약정된 금액을 먼저 내주었습니다. 아무런 돈도 없었으나 신심 깊고 자애로운 이들의 도움을 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마카오로 바로 가면 더 수월했지만, 그렇게 가로질러 갈 뱃삯이 없었기에 후원자를 만나길 희망하며 마닐라로 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자금도 없었으나 그를 이끄셨던 하느님의 섭리는 결국 고국인 프랑스 전교후원회를 통해 5,600프랑을 받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중국 영토의 청나라는 천주교를 박해하여 금지하던 상황이었지만 선교사들의 활동은 중국 전역에서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었고, 브뤼기에르 주교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 대륙을 향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프랑스 리옹 전교후원회원들에게 보낸 1832년 12월 14일 편지

전교후원회원 여러분, 전교후원회 이사회에서 5,600프랑을 제게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을 파리외방전교회 총장 신부로부터 방금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저의 처지를 알고서 베풀어주신 넓은 마음에 매우 감격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금은 제가 조선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데 필요한 경비**에 보태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불행한 조선 교우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을 정감 어린 염려와 예지로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의 기도를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맡기신 고결하고도 어려운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그 임무는 제게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제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오직 주님께 저의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주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공 여부는 하느님의 몫입니다. … **오로지 하느님 섭리의 도우심에 의탁하면서 새로운 선교지 조선을 향해 가겠습니다.**

갑사 주교 및 조선 대목구장 바르톨로메오 드림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 정양모·윤종국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 정양모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 생활성서사, 2024.

성경 73

성경 통독 길잡이

베드로 2서는 저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1,1)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변모를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16-18 참조). 또한 이 편지가 베드로 1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1서가 구약 성경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는 반면, 2서에서는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으며, 1서에 비해 2서의 문체가 더 장엄하고 2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 가운데 60% 정도가 1서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1서와 2서의 저자가 다르고, 두 서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2서 역시 1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또 다른 차명저자가 작성하였으며,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1,1)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노출된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2서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먼저 1장 1-2절에서 저

자는 편지의 수신 공동체를 향해 하느님의 축복과 더불어 인사합니다. 이때 저자가 수신자를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1,1)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도 및 사도들의 후계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전해 받은 가르침이 올바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21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본문의 첫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올바른 마음 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통해 필요한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열성을 다해서 믿음과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선물과 죄의 용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에 자신의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은 성령을 통해 하느

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전해 듣고 또 믿고 있는 바가 올바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2장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2서가 작성되던 2세기경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천상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참된 기원이 지고한 신성(神性)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결함이 있거나 악한 것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이 아니라 앎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체와 현세적 가치를 등한시하면서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였고,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육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장 1-16절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람들은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체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약속을 미룬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3,8)라고 말하면서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에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를 구원의 기회로 여기며 죄에서 벗어나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장 17-18절은 편지의 맺음말로서 저자는 다시 한 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더 몰두하라고 격려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노현기 다니엘 신부(사목국 행정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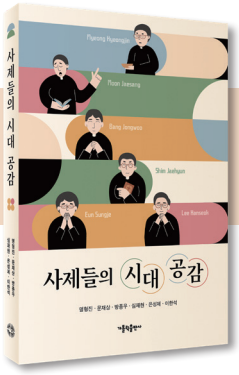
매일 하느님과 함께

이 달에 청하고 싶은 은혜 : .....

날짜	아침저녁 기도	미사 참례	성경 읽기	묵주 기도	성체 조배	희생과 선행	화살 기도	가정 기도	나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 : .....

..... 가(이)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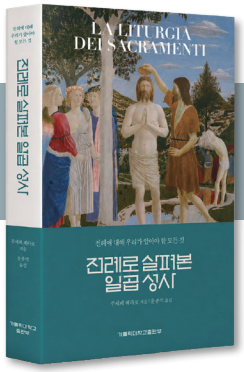
사제들의 시대 공감

명형진, 문재상, 방종우, 심재현, 은성제, 이한석 지음 | 140*205 | 288면 | 21,000원

'흔들리는 마음에 건네는 공감의 말들'
여섯 사제가 들려주는 사랑과 희망의 기록

삶이 흔들릴 때, 신앙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제들의 시대 공감》은 여섯 사제가 삶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경험을 따뜻하고 솔직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사제들 역시 같은 고민 앞에서 흔들렸고 같은 의문을 품으며 살아왔기에, 그 시간 동안 깨달은 하느님의 사랑을 독자들에게 전하며, 혼자 간직했던 삶의 아픔과 질문을 꺼내 보도록 돕습니다.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여섯 사제가 직접 작성아 한 기도문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희미해진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톨릭북플러스 www.catholicbookplus.kr | 도서 구입 문의 02) 6365-1888



전례로 살펴본 일곱성사

주세페 페라로 지음 | 윤종식 옮김 |145*220 | 550쪽 | 27,000원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은총입니다. 전례의 기도와 예식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의 핵심을 탐구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비추는 여정으로 성경과 교리를 전례 안에서 생생하게 풀어낸 해설서입니다. 지금, 전례 안에서 성사의 의미를 다시 만나보십시오

가톨릭대학교출판부 www.press.catholic.ac.kr 전국 서점 / 구입 문의 02-740-9718